

중국어 낱말의 의미 항목(義項)과 전이(轉移) 유형 분석*

閔 載 泓**

< 목 차 >

1. 들어가기
2. 낱말의 의미 항목(義項)
 - 2.1 낱말 의미 항목의 연변 유형
 - 2.2 낱말 의미 항목의 증가 : [A] → [A] + [B]
 - 2.3 낱말 의미 항목의 감소 : [A] + [B] → [A]
 - 2.4 낱말 의미 항목의 전이 : [A] → [A']
3. 의미 항목 탈락에 의한 낱말의 의미 연변
 - 3.1 의미 항목 탈락에 의한 낱말의 의미 확대
 - 3.2 의미 항목 탈락에 의한 낱말의 의미 축소
4. 낱말 의미의 전이
 - 4.1 낱말 감정 색채의 전이
 - 4.2 古수의 의미 輕重 전이
 - 4.3 낱말의 중심의미 전이
5. 낱말 의미의 전이 유형
 - 5.1 [사람] → [사물]
 - 5.2 [사물] → [사람]
 - 5.3 [A사람] → [B사람]
 - 5.4 [A사물] → [B사물]
6. 나가기

www.kci.go.kr

* 본 연구는 2011년도 덕성여자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들어가기

한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낱말은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발전 변화하고 도태되기도 한다. 낱말은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시적 통시적 발전 변화를 거치며 언어사용자의 수요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낱말의 변화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낱말이 변한다는 것은 글자나 형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낱말의 의미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낱말의 변화는 낱말의 의미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낱말의 의미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일까? 왜 낱말의 의미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낱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항목(義項)이 변하기 때문이다. 만약 單義詞라면 한 개의 의미 항목을 가질 것이고, 多義詞라면 두 개 이상의 의미 항목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의미 항목의 증감에 따른 변화가 바로 낱말 의미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중국어 낱말의 의미 변화 연구를 살펴보면, 王力이 1939년 《中國語文概論》에서 詞義擴大, 詞義縮小, 詞義轉移라는 기본적인 三分說을 주장한 이후로 큰 틀을 형성하였고, 후에 符淮青은 이를 보충하여 詞義深化, 感情色彩變化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낱말의 의미 변화를 언급할 때, 중국 언어학계에서는 ‘낱말 의미의 변화’(詞義變化)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낱말 의미의 연변’(詞義演變)이라는 개념을 널리 사용한다. 왜 ‘變化’가 아닌 ‘演變’인가? 변화는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는 한 시기, 한 지역, 한 의미의 단절된 변화를 의미한다. 반면, ‘演變’은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의 단면적인 단절된 변화가 아니다. 낱말의 변화는 한 지역, 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演變’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것이다.¹⁾ 따라서 ‘演變’은

1) ‘演’자는 甲骨文과 小篆의 자형이 모두 ‘水’를 의미부분으로 하고 ‘寅’을 받음부분으로 하는

역사적, 통시적으로 지속적인 변화가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낱말 의미의 변화는 바로 그 이전의 변화를 고려하고, 그 이전의 변화에는 그 이전 이전 단계의 의미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낱말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爾雅》에서 시작되었는데, 중국 최초의 낱말 풀이집으로 언급되는 《爾雅》의 낱말 풀이를 현대 중국어 언어사용자가 살펴 보아도,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의 의미가 보인다.

《爾雅·釋詁》에 “林, 烝, 天, 帝, 皇, 王, 后, 辟, 公, 侯, 君也.”라는 낱말 풀이가 있는데, 이 중 ‘林’과 ‘烝’을 제외한 낱말은 얼핏 보아도 ‘君’(임금, 군주)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林’과 ‘烝’은 현대 중국어에서 ‘君’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漢代 《爾雅》에서는 ‘林’²⁾과 ‘烝’³⁾이 각각 ‘君’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낱말의 의미 변화가 생기고 의미가 축소되면서 현재는 ‘君’이라는 의미 항목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두 낱말은 모두 ‘群’(무리)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당시에 ‘君’과 ‘群’이 통용되었기 때문에 《爾雅》와 같은 낱말 풀이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처럼 낱말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의미의 變化와 演變이 생기는 것이다. 이 글은 낱말 의미의 演變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의미 演變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낱말의 의미 항목(義項)과 낱말

형성자의 구조이다. 《說文解字》에서는 “演, 長流也, 一曰水名, 從水, 寅聲.”(演은 길게 흐른다는 뜻이다. 일설에는 강 이름이라고도 한다. 水는 의미부분이고, 寅은 발음부분이다)라고 하였다. 단절된 변화가 아닌 길게 흐르면서 변화하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現代漢語詞典》에는 “演變의 의미를 ‘發展變化(指歷時較久的)’라고 설명하고 있고, ‘一切事物都是不斷演變的’라는 예문을 실고 있는 것으로 보아 ‘演變’은 ‘변화 발전하다, 변천하다’의 의미가 된다. 낱말의 의미 변화에 더 적합한 개념이다.

- 2) ‘林’은 ‘樹林’(숲)의 뜻으로, 숲에는 나무들이 많은 의미로부터 ‘群聚, 盛多’(무리, 많다)의 의미로 가차되었다. 《詩經·小雅·賓之初筵》에 “百禮既至, 有王有林.”(온갖 예의가 모두 갖추어지니, 그 예가 크고도 성대하도다)라는 구절이 있고, 《毛傳》에도 “王, 大. 林, 君也.”(王은 크다라는 뜻이고, 林은 많다라는 뜻이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林’이 ‘群’의 뜻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 3) ‘烝’은 ‘衆’(무리)의 뜻으로 통용된다. 《詩經·大雅·烝民》에 “天生烝民, 有物有則.”(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으시고, 모든 물건마다 법칙이 있게 하셨네)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烝’은 ‘群’의 뜻을 갖게 되었고, ‘君’이 ‘群’과 假借 通用되면서 《爾雅》에서 ‘君’으로 풀이해 놓은 것이다.

의미의 전이(轉移)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낱말의 의미 항목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중, 의미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낱말의 의미는 당연히 확대되게 된다. 그러나 의미 항목이 탈락하게 될 때에는 낱말의 의미가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이 글은 이 부분을 주목할 것이고, 또한 낱말 의미 항목의 증감 없이 생겨나는 의미 전이 과정과 전이 유형도 살펴볼 것이다.

2. 낱말의 의미 항목(義項)

낱말의 의미 변화를 고찰하면, 그 낱말이 실제 언어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사용과 운용에서 어떤 변화를 갖는가가 중요해진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낱말을 운용하게 되는 단위는 바로 그 낱말의 내부 구조인 의미 항목인 것이다. 따라서 낱말 의미의 발전과 연변 역시 의미 항목의 변화와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낱말 의미의 연변을 언급하려면 의미 항목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1 낱말 의미 항목의 연변 유형

낱말의 의미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탈락되면서 낱말의 의미 변화가 생겨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의미 항목이 어떻게 연변 하는가 그 과정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직접 연변과 간접 연변으로 나눌 수 있다.

2.1.1 직접 연변

새로 생겨난 의미 항목은 원래 낱말의 의미 항목 중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낱말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와 새롭게 생겨난 파생 의미 사이에는 父子 관계에 비유할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貴’는 ‘物價高’(가격이 높다)의 原義를 갖고 있는데, ‘高’라는 정도에 착안하여 새롭게 파생된 의미 항목의 뜻은 ‘地位高’(지위가 높다)가 되었다. 이처럼 원래의 의미 항목과 새롭게 생겨난 의미 항목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할 때 이를 직접 연변이라 할 수 있다.

2.1.2 간접 연변

새롭게 생겨난 의미 항목의 뜻을 살펴보면, 원래 낱말의 의미 항목에서 파생되어 나온 새로운 의미로부터 재차 다시 한 번 더 파생된 이중 파생의 의미 항목이 된다. 따라서 낱말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와 새롭게 생겨난 의미 항목을 마치 祖孫(할아버지-손자) 관계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간접 연변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防’의 원래 의미는 ‘堤防’(제방)으로 명사인데, 명사 의미에서 동사 의미로 파생되어 ‘堵水, 防患’(물을 막다, 근심을 막다)라는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다. 이 단계에서 의미 연변이 끝나지 않고, 다시 동사에서 동사로의 의미 변화, 즉 ‘막는다’에서 ‘금지한다’라는 의미로 새롭게 연쇄되어 의미 변화가 생겨난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禁止, 防備’의 의미로 사용된다. 낱말의 의미 변화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이러한 연변은 연쇄식의 변화이다. 단계 별 연쇄적으로 의미 항목 변화, 즉 ‘A의미항목 → B의미항목 → C의미항목 → D의미항목’으로의 순차적 점진적 연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같은 간접 연변이라 하더라도 그 양상이 다른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연쇄적인 의미 항목의 연변이 아니라, 한 의미 항목으로부터 두 개 이상

의 의미 항목이 새롭게 파생되는 방사식 연변이 존재한다. 즉 'A의미항목 → B의미항목 / C의미항목 / D의미항목'의 일대다 (一對多) 연변을 발견할 수 있다. 한 낱말의 원래 의미에서 두 개 이상의 파생 의미가 동시에 발생하는 변화인 것이다. 예를 들면, '朝'의 本義는 '早晨'(아침)이다. 이후 이 의미 항목에 근거하여 연변이 생기는데, 本義로부터 새롭게 파생된 의미 항목은 순차적, 연쇄적 변화가 아니라 한 번에 동시에 발생하는 방사식 연변이다. 첫째, '아침'이라는 의미로부터 '朝覲'(신하가 임금을 알현하다)의 파생 의미가 생겨났다. 이는 신하가 아침에 임금을 조회에서 알현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침'이라는 원래 의미로부터 '初'(처음)의 파생 의미가 생겨났다. 이것은 아침이 하루의 맨 처음이기 때문이다. 셋째, '아침'이라는 의미에서 '一天'(하루)라는 파생 의미가 역시 생겨났다. 아침이라는 한 부분에서 전체인 하루를 의미하는 수사 방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단계에서 이단계로의 변화를 거친 다음, 다시 삼단계 변화가 생기는데, '朝覲'(알현)은 조정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이 의미로부터 '朝廷'(조정), '朝代'(조대), '朝向'(~를 향하여)⁴⁾라는 직접 연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朝'의 낱말 의미 변화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아침)→B(알현하다) / C(처음) / D(하루)→B'(朝廷, 朝代, ~를 향하여)

2.2 낱말 의미 항목의 증가 : [A] → [A] + [B]

낱말의 연변 중, 의미 항목의 증가는 한 낱말이 가지고 있던 원래 의미에 새로운 의미 항목이 추가되어 새로운 의미가 함께 공존하는 결과를 말한다. 原義인 [A]의 의미 항목에 새롭게 [B]의 의미 항목이 추가되어 [A] + [B]의 의미 항목을 갖게 되는 것이다.

www.kci.go.kr

4) 조정에서 신하가 임금을 알현할 때, 왕은 南面하여 있고, 신하가 임금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 항목이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丑角’은 원래 ‘戲曲角色中的丑角’(희곡 배우 중 어릿광대 역)의 의미 항목을 가진 單義詞인데, 새로운 의미 항목인 ‘在某一件事中充當不光彩的角色’(어떤 일에 있어 돋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추가되어, 의미 항목이 증가한 경우이다.

‘舌頭’는 ‘혀’라는 本義 이외에 새롭게 의미 항목이 추가되어, ‘爲偵訊敵情而活捉的敵人’(적의 정보를 염탐하기 위하여 잡아온 적)의 의미를 함께 갖게 되었다.

또 ‘寫’를 살펴보면, 甲骨文과 金文에는 ‘寫’자가 보이지 않는다. 《說文解字》에서는 “寫는 물건을 놓아둔다는 뜻이다. 宀은 의미 부분이고, 鳥은 발음 부분이다.(寫, 置物也. 從宀, 鳥聲.)”라고 하였다. 이처럼 ‘寫’는 원래 ‘어떤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후에 引伸되어 물건을 원래 모양대로 ‘묘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다시 引伸되어 ‘쓰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원래 의미 항목으로부터 새로운 의미 항목이 추가되면서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의미 항목 증가는 單義詞에서 多義詞로의 변화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A] → [A] + [B]……이 될 것이다. 즉 의미 항목이 추가되어, 한 낱말이 여러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형태가 된다.

한편, 원래부터 한 개의 의미 항목이 아닌 여러 개의 의미 항목을 갖는 多義詞가, 공시적 변화를 거치고 낱말 내부의 의미 항목이 추가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多義詞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수식화하면 [A] + [B] → [A] + [B] + [C]……이 될 것이다.

2.3 낱말 의미 항목의 감소 : [A] + [B] → [A]

한 낱말이 연변을 거칠 때, 새롭게 파생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서 원래의 의미와 함께 사용되다가, 이후 원래의 의미 항목이 차차 폐기되는 경우가 있다. [A], [B] 의미 항목을 갖고 있던 낱말은 [B]의 의미 항목이 감소하면서 [A]

의미 항목만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의미 항목이 감소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면, ‘兵’은 본래 ‘兵器’(병기)의 의미인데, 후에 ‘軍隊, 士兵’의 의미 항목이 새롭게 파생되어 세 개의 의미항목을 갖는 낱말이 되었고, 그 의미들이 함께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현재는 ‘士兵’의 의미 항목만 남고, 나머지 두 개의 의미 항목은 도태되고 소실되어 최종적으로 의미 항목이 감소한 경우이다. ‘兵’의 의미 항목 중, ‘軍隊’와 ‘兵器’의 의미는 이미 소실되었지만, 여전히 형태소 의미로는 존재하면서 다른 낱말이나 구를 형성할 때 의미 작용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兵不厭詐’(전투에서 군대는 적을 속여도 좋다), ‘草木皆兵’(초목이 모두 적의 군대처럼 보인다), ‘兵刃’(무기, 병기) 등에 사용될 때 ‘군대’나 ‘병기’의 의미가 살아있기도 하다.

다른 예를 보면, ‘子’는 古代 중국어에서 ‘男子的美稱’(남자에 대한 미칭)의 의미 항목과 ‘子女’(자식 중 사내아이)의 의미 항목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낱말의 연변을 거쳐 현재는 전자의 의미 항목이 소실되어 감소되었다.

古代 중국어에서 ‘愛’는 ‘喜歡’(좋아하다)과 ‘吝惜’(인색하게 굴다, 내놓기를 아까워하다)의 두 의미 항목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吝惜’의 의미 항목은 소실되어 사라졌다. 의미 항목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2.4 낱말 의미 항목의 전이 : [A] → [A’]

낱말 의미 항목의 전이는 [A] → [A’]⁵⁾로 수식화할 수 있는데, 낱말의 의미 연변 과정을 살펴보면, 의미 항목의 확대나 축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낱말 의미 항목의 전이는 原義와 新義 사이에 의미 항목이 새롭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 즉 의미 항목의 숫자 변화가 없이, 기존의 의

5) 의미 항목의 전이를 통해 새롭게 생겨난 A’는 A 의미 항목 이외에 새롭게 의미 항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A라는 원래 의미 항목의 내부에서 의미 전이가 생겨나서 A’의 의미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미 항목으로부터 전이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는 형태이다.

의미 항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의미 항목의 숫자는 그대로이면서, 의미만 [A] → [A']로 전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미 항목의 전이를 다시 세밀하게 분석하면, 낱말 의미 연변의 세 유형인 의미 확대, 의미 축소, 의미 전이로 세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詩’는 원래 春秋戰國 시대의 《詩經》을 의미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詩歌’의 통칭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의미 항목의 증감 없이 [A] → [A'] 전이가 생겼다.

‘瓦’의 원래 의미는 ‘구워 만든 도자기 제품’인데, 현재는 ‘기와’의 의미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새롭게 추가되거나 탈락한 의미 항목 없이 단순한 [A] → [A'] 전이가 생겨난 것이다.

낱말 의미의 확대나 낱말 의미의 축소는 변화된 낱말의 의미 속에 원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낱말 의미의 전이’ 유형은 낱말이 지칭하는 원래의 객관 사물에 이미 의미 변화가 생겨서, 완전히 의미가 다른 낱말로 바뀌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寺’자를 살펴보자. 甲骨文에는 ‘寺’자가 보이지 않는다. 金文의 자형은 대부분 ‘之’ 밑에 손을 의미하는 ‘又’가 있는 형태인데, 때로는 ‘口’가 더해진 형태도 있다. 《說文解字》에서는 “寺, 廷也. 有法度者也. 從寸, 之聲.”(寺는 관청을 뜻한다. 법도가 있다는 것이다. 寸은 의미부분이고, 之는 발음부분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寺’는 원래 ‘官署, 官舍’(관청)의 뜻으로, 봉건왕조 시기에 종묘 의식을 맡아보는 국가 부서(太常寺)였는데, 東漢 이후 불교의 유입 이후 불공을 드리는 ‘사찰’의 의미로 전이되었다. 의미 항목의 증가나 감소 없이 [A] → [A']로 연변하면서 낱말 의미의 전이가 생겨난 것이다.

‘本’자를 보면, ‘本’의 원래 의미인 ‘樹根(나무뿌리)’으로부터, ‘主要的(중요한, 근본적인)’의 의미로 의미 항목 증감 없이 의미의 전이가 이루어졌다.

3. 의미 항목 탈락에 의한 낱말의 의미 연변

한 낱말이 여러 개의 의미 항목(義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多義詞라고 하는데, 이 多義詞가 시대적 변화와 연변을 거치면서 몇 개의 의미 항목이 추가되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한다. 즉 의미 항목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즉 낱말 의미의 연변에는 늘상 낱말 의미 항목의 증가와 탈락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다.

이때, 의미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 그 낱말의 의미는 당연히 확대되게 된다. 그러나 의미 항목이 탈락하게 될 때에는 낱말의 의미가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

3.1 의미 항목 탈락에 의한 낱말의 의미 확대

언뜻 한 낱말의 의미 항목이 탈락하면, 그 낱말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의미 항목 중 몇 개가 탈락하게 되면서도 그 낱말의 의미하는 바의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의미 항목의 탈락이 오히려 낱말의 의미 확대로 이어지는 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 한 낱말이 갖는 의미 항목인 [A][B][C]에서, [A][B]의 의미 항목이 탈락하여 [C]라는 의미 항목만 남게 된다면, [A][B][C] → [C]로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의미 항목이 탈락하고 남은 [C]의 의미 항목에 일반지칭이나 전체지칭이 들어있다면, 비록 한 개의 의미 항목이지만 어떤 사물 전체를 의미하는 범칭의 의미가 담겨있게 되면서 낱말 의미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낱말 의미의 확대는 낱말이 가리키는 의미가 '부분지칭에서 전체지칭으

로, 의미 항목은 탈락하였지만 오히려 의미는 확장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嘴'는 본래 [飛翔]+[兩足]+[有毛]+[動物]+[進食器官]의 의미 항목을 갖고 있었으나, 뒤에 [飛翔]+[兩足]+[有毛] 세 의미 항목이 탈락하여 [動物]+[進食器官]의 의미만 남게 되었다. 즉 '嘴'가 '새의 주둥아리'를 의미하였으나, 현재는 '입을 지칭하는 통칭'으로 낱말의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⁶⁾

다른 예를 살펴보면, '顧'는 《說文解字》에 "顧, 還視也. 從頁, 雇聲." (顧는 돌아본다는 뜻이다. 頁이 의미부분이고, 雇가 발음부분이다)라고 풀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回頭看'(머리를 돌려 보다)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는 [回頭]라는 낱말의 의미 항목이 탈락하면서 '일반적인 볼'의 의미 항목 [一般性的看]만 남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낱말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睡'는 《說文解字》에 "睡는 앉아서 졸다라는 뜻이다(睡, 坐寐也.)"라고 하여, '눈이 감기고 꾸벅꾸벅 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즉 [坐着打盹]의 의미 항목을 갖고 있었다. '衣冠을 풀지 않고 졸고 있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현재는 '모든 형태의 수면, 잠'을 의미하는 [處於睡眠狀態]의 의미 항목을 나타내게 되었다. [坐着]의 의미 항목이 탈락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낱말 전체의 의미는 확대되었다.

'訪'은 《說文解字》에 "訪, 汎謀曰訪." (訪은 널리 물어 보는 것을 말한다)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 항목이 '문의하다, 자문하다'의 [咨詢]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原義에서 '의견을 구하다'인 [征求意見] 의미 항목이 탈락하면서, 낱말의 의미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好'는 본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의미로, [容貌美]의 의미 항목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容貌]의 의미 항목이 탈락하였다. '일반적으로 좋고, 아름다운'의 [一般的美] 항목만 남게 되었다.

'響'은 본래 '메아리'인 [回聲]의 의미 항목을 갖는 낱말인데, 지금은 '메아리,

6) '嘴'와 '口' 중, '嘴'가 더 쓰임이 많아진 것은 '嘴'가 '사람의 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 확대되었기 때문에 활용도 또한 높아진 것이다.

울려퍼지다'의 [回蕩] 의미가 탈락하여 '일반적인 소리' [一般的聲響] 항목을 의미하게 되었다.

'唄'은 《說文解字》에 “唄, 導也.”(唄은 이끌다라는 뜻이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따라서 '唄'이 '이끌면서 노래하다' [帶頭唄]의 의미항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끌다'라는 [帶領]의 의미 항목이 탈락하였고, '일반적인 노래'를 의미하면서 전체적으로 낱말의 의미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門'은 甲骨文, 金文, 小篆에 모두 사립문(戶) 두 짝을 그린 모습으로 등장한다. 《說文解字》도 “門, 聞也.⁷⁾ 從二戶, 象形.”(門은 문에 기대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두 개의 사립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象形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즉 '門'의 原義는 '두 짝의 문' [兩扇的門]임을 알 수 있다. 이후 [兩扇]이라는 의미 항목이 탈락하였고, 현재는 모든 문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역시 의미 항목 탈락에 의한 의미 확대의 예이다.

이상에 열거된 예들을 의미 항목의 탈락 관점에서 그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嘴 : [鳥的嘴] → [動物的嘴] (-[飛翔], [兩足], [有毛])
 顧 : [回頭看] → [一般性的看] (-[回頭])
 睡 : [坐着打盹] → [處于睡眠狀態] (-[坐着])
 訪 : [咨詢] → [訪問] (-[征求意見])
 好 : [容貌美] → [一般的美] (-[容貌])
 響 : [回聲] → [一般的聲響] (-[回蕩])
 唄 : [帶頭唄] → [一般性的唱] (-[帶領])
 門 : [兩扇的門] → [所有的門] (-[兩扇])

www.kci.go.kr

7) '門'을 '聞'이라고 풀이한 것은 당시 東漢 때 광범위하게 유행하던 聲訓에 의거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劉熙의 聲訓學 전문 저서인 《釋名》이 탄생하게 된다.

3.2 의미 항목 탈락에 의한 낱말의 의미 축소

낱말 의미의 축소는 낱말의 연변 과정 중 의미가 축소되는 것을 말하는데, 낱말이 가리키는 의미가 ‘일반지칭에서 개별지칭’으로 축소되거나 ‘전체지칭에서 부분지칭’으로 줄어드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한 낱말이 갖는 의미 항목인 [A][B][C]에서, [A][B]의 의미 항목이 탈락하여 [C]라는 의미 항목만 남게 된다면, [A][B][C] → [C]로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原義에 해당하는 [A][B][C] 의미 항목에는 반드시 일반지칭이나 전체지칭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또는 [A], [B], [C] 의미가 함께 합쳐져서 들어 있다가, [A][B]의 의미 항목이 탈락하고 빠져 나가면서 [C] 의미 항목만 남게 되고 결국 의미가 축소되는 형태인 것이다.

실제 예를 들어보자. ‘宮’은 甲骨文에 이미 가옥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說文解字》에도, “宮, 室也.”(宮은 집을 뜻한다)라고 하였다. 즉 ‘사람이 사는 집’의 일반적 지칭인 [泛指的房屋] 의미 항목에서, ‘황제, 황후, 태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帝后太子] 의미 항목이 탈락(-)하면서,⁸⁾ ‘궁궐’의 의미 항목인 [帝后太子的房屋]만 남게 되었다. 즉 의미 항목 탈락에 의한 의미 축소의 유형이고, ‘전체지칭에서 부분지칭’으로 의미가 줄어든 것이다.

‘臭’는 甲骨文에 ‘自’와 ‘犬’의 결합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自’는 ‘鼻’의 뜻이므로, 개가 코로 냄새를 맡는다는 뜻을 의미한다. ‘臭’는 원래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를 모두 의미하는 [泛指的氣味] 의미 항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나쁜 냄새를 제외한 냄새’인 [-難聞] 의미 항목이 탈락하여 의미가 축소되었다.

‘穀’은 《說文解字》에 “穀, 續也.”⁹⁾(穀은 續, 즉 낱알이라는 뜻이다. 모든 곡식의 총칭이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따라서 원래의 의미 항목은 ‘모든 곡식의 범칭’ [泛指農作物]인데, 의미 항목이 탈락하여 현재는 ‘벼’ [稻穀]의 의미로 축

8) 이 내용을 [-帝后太子] 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집’인 [泛指的房屋]의 의미 항목에서 [-帝后太子](황제, 황후, 태자를 제외) 의미 항목이 탈락하면서, 현재의 ‘宮’의 의미로 낱말 의미 축소되었다.

9) ‘續’은 ‘粟’ 즉 낱알이라는 뜻으로, 발음이 같아서 빌려 쓴 것이다.

소되었다.

‘球’는 ‘둥근 형태의 모든 물건’〔球形物〕에 대한 범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체육용 공’〔體育用品의球〕의 의미 항목만 남기고, 탈락하여 의미가 축소되었다.

‘誦’의 원래 의미는 ‘사람A가 사람B에게 고하다’라는 뜻으로, 사람A와 사람B 사이에는 상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某人告訴某人]의 의미 항목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고하다’〔上級告訴下級〕라는 의미 항목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吃’의 원래 의미는 ‘먹고 마시다’〔飲+食〕의 의미 항목을 모두 포괄하였는데, 현재는 ‘마시다’〔飲〕의 의미 항목이 탈락하여, [食]의 의미 항목만 남게 되었다.

‘肥’는 《說文解字》에 “肥, 多肉也.”(肥는 살이 많다는 뜻이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사람과 가축이 살찐’의 [人肥+畜肥] 의미 항목을 가진 낱말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人]과 관련된 의미 항목이 탈락하고, [畜肥]의 의미 항목만 남게 되었다. ‘사람이 뚱뚱하다’라는 표현에는 ‘胖’을 사용하고 있다.

‘惡’은 《說文解字》에서 “惡, 過也.”(惡은 잘못이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원래 의미는 ‘품행, 모습’과 관련된 [品行不好+形貌不好]의 의미 항목을 갖고 있었는데, ‘모습’과 관련된 [形貌] 의미 항목이 탈락하였고, 지금은 [品行不好]의 의미로 축소되었다.

‘美麗’의 원래 의미 항목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美麗的男人和女人]이었다. 지금은 ‘남성’〔男性〕과 관련된 의미 항목이 탈락하고, ‘여성의 미’와 관련된 [美麗的女人] 의미 항목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報復’는 ‘은혜에 보답하고, 원수에게 복수하다’라는 [報恩+報仇]의 의미 항목을 가진 낱말이었다. 이 중에서 ‘은혜’와 관련된 [恩情] 의미 항목이 탈락하면서 ‘원수’와 관련된 [報仇] 의미 항목만 남게 되었다.

이상에 열거된 예들을 의미 항목의 탈락 관점에서 그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宮 : [泛指的房屋]	→ [帝后太子的房屋] (-[-帝后太子])
臭 : [泛指的氣味]	→ [難聞的氣味] (-[-難聞])
穀 : [泛指農作物]	→ [稻穀] (-[-稻穀])
球 : [球形物]	→ [體育用品的球] (-[-體育用品])
詔 : [某人告訴某人]	→ [上級告訴下級] (-[-上下級的人])
吃 : [飲+食]	→ [食] (-[-飲])
肥 : [人肥+畜肥]	→ [畜肥] (-[-人])
惡 : [品行不好+形貌不好]	→ [品行不好] (-[-形貌])
美麗 : [美麗的男人和女人]	→ [美麗的女人] (-[-男性])
報復 : [報恩+報仇]	→ [報仇] (-[-恩情])

4. 낱말 의미의 전이

4.1 낱말 감정 색채의 전이

한 낱말이 공시적인 연변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 색채의¹⁰⁾ 전이가 생겨날 수 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4.1.1 貶義 / 中性 → 褒義

冤家, 怨家 : '원수'라는 뜻의 이 낱말은 본래 貶義 또는 中性의 감정색채를 갖는 낱말이다. 후에 '미워하는 것 같지만 실은 사랑하여 마음 속에 번민을 가져오는 사람'의 의미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처음에 가졌던 貶義 또는 中性의

10) 한 낱말은 그 낱말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색채에 따라, 긍정의 의미를 갖는 褒義詞, 부정의 의미를 갖는 貶義詞, 긍정과 부정의 중간적 의미를 갖는 中性詞로 나누어진다.

색채가 긍정의 의미인 褒義로 변한 예이다.

犧牲 : ‘고대 제사에 사용되는 가축’이라는 中性的 색채에서 ‘정의로운 일을 위해 목숨을 내놓다’라는 褒義詞가 되었다.

4.1.2 褒義 / 中性 → 貶義

明目張膽 : 본래 ‘敢作敢爲’(과감하게 행동하다)라는 긍정적, 중성의 감정 색채를 갖는 낱말인데, ‘公開做壞事’(공개적으로 나쁜 짓을 하다)의 의미를 갖는 貶義詞로 바뀌었다.

下流 : 고대에 ‘지위가 낮거나 처지가 불우한 것’을 의미하였다. 司馬遷의 《報任少卿書》에 보이는 “下流多謗議.”(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비방이 많았다)라는 기록에서도 ‘下流’는 중성 색채의 의미를 갖는 낱말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品德惡劣’(품행이나 말이 비열하고 천하다)라는 의미의 貶義詞로 바뀌었다.

4.1.3 中性 → 貶義

復辟 : ‘천자가 다시 폐위에 오르다’라는 뜻으로 中性詞인데, 지금은 ‘반대 세력이 부활하다’라는 貶義詞로 바뀌었다.

4.1.4 褒義 → 貶義

無賴 : 원래 ‘活潑好玩’(활발하고 유쾌한)의 의미를 갖는 褒義詞였는데, 지금은 ‘무뢰하다’라는 貶義詞로 바뀌었다.

妖女 : 원래 의미는 ‘美女’(미녀)이다. 東漢 張衡의 《定情賦》에도 “夫何妖女之淑麗, 光華絕而秀容.”(미인이 어찌 아름다운지, 빛나고 수려하도다)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여기서 ‘妖女’는 褒義의 뜻을 가진 낱말이다. 지금은 ‘打扮妖艷, 作風不正派的女子’(화장이 요염하고 행실이 나쁜 여자)라는 貶義詞가 되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감정 색채의 전이 유형을 분석하면, 원래 부정의 의미를 갖는 貶義詞가 긍정의 의미를 갖는 褒義詞로 전이되는 경우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처음에 갖고 있는 부정의 의미가 긍정의 의미로 바뀌어 전이되기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2古今의 의미 輕重 전이

낱말의 의미는古今의 차이에 따라 그 輕重의 정도가 달라지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恨’의 古義는 ‘遺憾, 不滿’(유감, 불만)의 의미로,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원망, 증오, 한스럽다’에 비해 훨씬 가벼운 색채를 띤다. 《漢書·蘇武傳》에 보이는 “子爲父死亡所恨”(부모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자식의 유감)에는 ‘원망이나 증오’와 같은 무거운 색채의 뜻이 담겨있지 않다. 즉 지금의 의미가 옛날 의미 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怨’은 ‘恨’과는 반대로 古義가 무겁고, 今義가 가벼운 예에 해당된다. 王安石의 《答司馬諫議書》에 “以致天下怨謗也.”(이로써 천하의 원한을 초래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王安石이 新法을 행함으로써 천하의 ‘원망’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또 《詩經·氓》에 “及爾偕老, 老使我怨”(당신과 해로하려 하였으나, 늙어서 나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 그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아내의 ‘원망과 한’이 표현되어 있다. 이 두 문헌에 사용된 ‘怨’의 의미는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怨’의 ‘불만’이라는 의미와는 다른 ‘원통함’이라는 좀 더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낱말의 의미 색채는 통시적 변화에 따라古今의 의미 輕重이 달라지는 예가 많이 존재한다. 이것은 긍정, 중성, 부정의 감정 색채와는 별도로, 의미의 輕重 차이가 존재하는 예들이다.

4.3 낱말의 중심의미 전이

낱말의 의미 전이를 분석하다 보면, 낱말의 중심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핵심의미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古今의 낱말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낱말 ‘暫’의 의미 변화를 살펴보면, 《史記·李將軍列傳》에 “廣暫騰而上胡兒馬.”(이광은 돌연 위로 올라가 오랑캐 말에 올라탔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暫’은 ‘돌연’(갑자기)의 의미를 갖는다. 즉 고대에는 어떤 ‘행위의 신속함과 빠름’에 치중한 반면, 현대중국어에서는 ‘시간의 짧음’을 의미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잠깐’이라는 의미로 전이가 일어났다.

‘交通’의 예를 보면, ‘交通’은 고대에 ‘사람 사이의 교류와 왕래, 소통’ 부분에 중점을 둔 어휘였다. 晁錯의 《論貴粟疏》에 “因其富厚, 交通王侯.”(그 부유함과 후덕함으로 왕후와 왕래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交通’은 사람 사이의 소통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의 ‘交通’에는 위와 같은 의미는 없고, 단지 운송 분야에 중점을 두어 ‘차량 교통’의 의미만을 갖는다.

이처럼 한 낱말의 의미를 분석할 때 時空의 변화를 거치면서, 중심의미를 어느 부분에 맞추는가에 따라 낱말의 전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5. 낱말 의미의 전이 유형

낱말 의미의 전이를 낱말이 지칭하는 바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면 그 유형을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지칭하는 낱말의 原義와 新義를 살펴보면,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사물을 나타내는 의미로 주체의 전이가 생긴 유형이 있고, 거꾸로 사물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바뀐 경우도 있다.

5.1 [사람] → [사물]

信 : 원래 의미는 ‘送信的人, 使者’(서신을 보내는 사람, 사신)의 의미에서 ‘書信’(편지)로 낱말의 전이가 생겼다.

行李 : “양국을 왕래하는 사신”이라는 의미에서 “짐, 보따리”의 의미로 낱말의 의미 전이가 생겼다.

事 : 어떤 일을 담당하는 “官吏(관리)”에서, 동작의 대상인 “事情(일, 사건)”로 전이되었다.¹¹⁾

5.2 [사물] → [사람]

첫 번째 유형과는 반대로, ‘사물’을 의미하는 낱말이 ‘사람’을 지칭하는 낱말로 전이되는 예들이 있다.

胥 : 《說文解字》에 “胥, 蟹醢也.”(胥는 게를 절여놓은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胥’의 原義는 ‘게장’이었다. 후에 문서를 관리하는 ‘胥吏’(서리)라는 의미로 전이되었다.

走狗 : 《史記·越王勾踐世家》에 “狡兕死, 走狗烹.”(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가 삶아진다.)라는 기록에서 ‘走狗’의 원래 의미가 ‘獵狗(사냥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에 ‘走狗’는 ‘壞人和主子的幫凶’(나쁜 사람, 우두머리의 줄개)라는 의미로 전이되었다.

[사물] → [사람]의 유형 중, 원래 의미는 사물을 나타냈는데, 후에 낱말 의미의 전이가 일어나서 사람의 동작이나 행위, 품행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뀐 경우가 있다. 즉 품사의 전이가 일어나는 예이다.

‘犧牲’은 본래 ‘고대 제사에 사용되는 가축’을 의미하였는데, 후에 ‘정의로운

11) 閔載泓(2008), <중국어 낱말의 의미 변화 연구>, 《中語文化研究》 제13輯 참조.

일을 위해 목숨을 내놓다'라는 의미로 전이되었다. 품사 역시 명사에서 동사로 전이가 이루어졌다.

‘壘斷’은 《愚公移山》에 “冀之南，漢之陰，無壘斷焉。”(冀의 남쪽, 漢의 북쪽에는 언덕이 없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壘斷’은 ‘산봉우리나 언덕’을 말하는데, 후에 ‘壘斷市場’(시장을 독점하고 농단하다)의 의미로 바뀌어,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 전이되었다.

‘來’는 甲骨文에서 ‘小麥’(보리)를 뜻하는 글자였고, 《詩經·周頌·思文》에도 “貽我來牟.”(우리에게 보리와 밀 내리시네)라는 구절이 보인다. ‘來’는 후에 本義가 소실되고 연변되어 사람의 동작인 ‘往來’의 ‘來’로 사용되었다. 품사 역시 명사에서 동사로 전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鄙’의 本義는 ‘邊疆，邊境’(변방, 변경)으로 명사이다. 《鄭伯克段于鄆》에 “大叔命西鄙北鄙貳于己”(태숙은 서쪽 변방과 북쪽 변방 둘을 자신에게 속하도록 명하였다)라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후에 인신되어 鄙는 ‘천하고 비열하다’라는 형용사로 품사 전이되었다.

5.3 [A사람] → [B사람]

낱말의 원래 의미가 지칭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인데, 낱말의 전이가 일어난 후 다른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바뀌는 유형이 있다.

‘行人’은 본래 ‘外交官，使節’(외교관 또는 외교 사절)을 지칭하였다. 《周禮·秋官》에 ‘行人’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春秋戰國 이후 明代에 이르기까지도 ‘行人’ 제도가 있었다. 《論語·憲問》에도 “行人子羽修飾之.”(외교관 子羽가 이를 수정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管子·侈靡》에도 “行人不可有私.”(외교사절은 사사로움을 가져서는 안된다)라는 문구가 있다. 모두 ‘외교관’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行人’은 ‘在路上行走的人’의 의미로 낱말 전이가 생겼다. 즉 인물A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인물B를 지칭하는 의미로 전이가 생겼다.

‘丈人’은 원래 ‘老人, 前輩’(노인, 연배가 높은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論語·微子》에 “子路從而後, 遇丈人.”(子路가 공자를 따르다 뒤쳐졌는데, 한 노인을 만났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낱말 의미 항목의 증감 없이, 낱말 의미의 전이가 이루어져 原義가 소실되었다.

‘丈夫’의 원래 의미는 ‘成年的男子’(성인 남자)였다. 《國語·越語》에도 “丈夫二十不娶, 其父母有罪.”(장부가 스물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지금은 原義가 소실되고 ‘女子的配偶’(남편)의 의미를 갖는다. 즉 낱말의 전이가 이루어져 인물A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인물B를 지칭하는 의미로 변화한 것이다.

‘烈士’는 원래 ‘有志建立功業的人’(功業을 세우는 데 뜻을 둔 사람)을 나타내는 낱말로, 曹操의 《龜雖壽》에도 “烈士暮年, 壯心不已.”(지사는 만년에도 강한 뜻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에서는 ‘爲正義而犧牲的人’(정의를 위해 희생한 열사)의 뜻으로, 인물A에서 인물B로 낱말 의미의 전이가 생겨났다.

이러한 유형의 낱말 전이 형태를 더 분석해 보면, 어떤 인물A의 동작이나 행동을 지칭하는 의미로부터, 인물A 그 자체로 바뀐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품사 역시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 전이가 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會計’의 원래 의미는 ‘計議, 商量事情’(어떤 일을 계획하고, 상의하다)라는 동작 행위를 나타낸다. 《史記·陳涉世家》에 “號令召三老, 豪杰與皆來會計事.”(陳勝이 鄉官인 三老와 지방의 호걸에게 명하여, 모두 모여 그 일을 상의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때의 ‘會計’는 동사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擔任會計工作的財務人員’(회계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뜻으로 바뀌어 품사도 명사로 전이되었다.

이 외에도, 사람A의 의미에서 사람A의 동작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의미로 전이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품사 역시 명사에서 동사로 품사 전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參軍’은 원래 官名을 나타내는 명사였다. 《三國演義·失街亭》에

“詩中，尙書，長史，參軍，此悉貞良死節之臣。”(詩中，尙書，長史，參軍은 모두 바로 어질며 죽음으로 절개를 지키는 신하입니다)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參軍’은 漢末부터 唐에 이르기까지 설치한 임금, 재상 또는 장군의 군사 막료를 의미하였다. 明清 시대에는 출납문서를 맡은 관직명으로 사용되었는데, 清代 大學士 劉墉이 이 관직을 맡은 이후로 이 관직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낱말의 의미도 전이되어 ‘입대하다, 종군하다’의 의미가 되었고, 품사 역시 명사에서 동사로 전이되었다.

‘吻’은 《墨子·尙同中》에 “使人之吻，助己言談.”(사람의 입술은 자기의 말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여기서 ‘吻’은 ‘嘴脣’(입술)을 나타내는 낱말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지칭하였다. 현재는 사람의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전이되어 ‘用嘴脣觸人或物’(입술로 사람이나 사물을 접촉하다)라는 뜻이 되었다. 품사 역시 명사에서 동사로 전이되었다.

5.4 [A사물] → [B사물]

낱말의 원래 의미가 지칭하는 것은 특정한 사물인데, 낱말의 전이가 일어난 후 다른 특정 사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바뀌는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涕’는 上古시기에 ‘眼淚’(눈물)을 의미하였고, ‘鼻涕’(콧물)을 가리키지는 않았다. 《莊子·大宗師》를 보면, “哭泣無涕，中心不戚.”(울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속마음도 슬프지 않다)라는 구절이 있으며, 《詩經·陳風·澤陂》에도 “寤寐無爲，涕泗滂沱.”(자나 깨나 아무 일 못하고, 눈물 콧물만 비오듯 흘러네)라는 표현이 있다. 두 문헌에서 ‘涕’는 모두 ‘눈물’을 의미하였다. 이 시기에 ‘콧물’을 표현할 때에는 ‘泗’ 또는 ‘淚’라는 낱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漢代 이후 ‘涕’의 낱말 의미에 전이가 생겨나서 ‘콧물’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즉 A사물에서 B사물로 의미가 전이되었다.

‘股’의 원래 의미는 ‘大腿’(넓적다리)인데, 지금은 ‘機關團體組織內的部門名

稱(기관 단체의 조직 명칭)의 의미로 전이되었다.¹²⁾ 이 역시 A사물 지칭에서 B사물 지칭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幣’는 甲骨文과 金文에 보이지 않지만, 《說文解字》에는 “幣, 帛也. 從巾, 敝聲.”(幣는 예물을 뜻한다. 巾이 의미부분이고, 敝는 발음부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원래 의미가 ‘帛’(비단)으로, 예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戰國策·齊策》에도 “請具車馬皮幣, 願君以此從衛君遊.”(말과 수레, 예물용 가죽과 비단을 준비해 두었으니, 원컨대 이것을 가지고 가衛君과 교유하기 바라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는 ‘錢, 貨幣’(돈, 화폐)의 의미로 낱말 의미 전이가 생겼다. 사물 A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사물B를 지칭하는 것으로 변화가 생긴 것이다.

‘床’은 甲骨文과 金文에 보이지 않고, ‘床’의 本字인 ‘牀’자¹³⁾ 《說文解字》에서 찾아볼 수 있다. 《說文解字》에 “牀, 安身之坐者. 從木, 爿聲.”(牀은 몸이 편안하게 앉아서 쉬게 하는 물건이다. 木은 의미부분이고, 爿은 발음부분이다)라고 풀이한 것으로 보아 ‘床’의 原義는 ‘一種坐具’(일종의 앉는 도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古樂府인 《孔雀東南飛》에도 “媒人下床去, 諾諾復爾爾.”(중매인이 평상을 내려서서 싱글벙글, 연방 끄덕끄덕)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원래 의미는 침대가 아닌 ‘앉는 평상’으로 확인된다. 후에 ‘침대’의 의미로 변화가 생겼다. 의미 항목의 증감 없이, 기존의 낱말 의미 항목의 전이를 통해, A라는 사물을 지칭하는 의미에서 B라는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이되었다.

‘表’자는 甲骨文과 金文에 보이지 않지만, 《說文解字》에는 “表, 上衣也. 從衣, 從毛. 古字衣裘以毛爲表.”(表는 겹옷을 뜻한다. 衣와 毛를 따른다. 옛날 가죽옷을 입을 때는 털이 있는 쪽을 바깥으로 입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즉 原義는 ‘穿在外面的衣服’(겉에 입는 옷)인데, 지금은 ‘表格圖表或鐘表’(도표, 손목시계)의 의미로 전이되었다.

12) ‘股’는 후에 量詞로도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中古 시기 이후이다.

13) ‘床’은 ‘牀’의 俗字이다.

‘湯’자 역시 갑골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金文과 小篆의 자형은 모두 ‘水’와 ‘易’으로 이루어져 있다. 《說文解字》에서도 “湯，熱水也。從水，易聲。”(湯은 뜨거운 물을 뜻한다. 形符는 水이고, 易은 聲符이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로써 ‘湯’의 의미가 ‘開水，熱水’임을 알 수 있다. 《史記·廉頗藺相如列傳》에도 “臣之欺王之罪當誅，臣請就湯鑊。”(신이 군왕을 기만한 죄는 마땅히 베어져야 합니다. 신은 물이 끓는 가마솥으로 들어가길 청합니다)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낱말 의미의 전이가 생겨서, ‘국물, 탕’의 의미로 바뀌었다. 이 역시 A사물 지칭에서 B사물 지칭으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斤’¹⁴⁾의 원래 의미는 ‘斧頭’(도끼)이다. 漢代 이후 도끼의 의미가 사라지고 현재는 量詞로만 사용되고 있다.

‘權’자는 찾아보면, 《莊子·胠篋》에 “爲之權衡以稱之”(이를 위해 저울추와 저울대로 무게를 달았다)라는 풀이가 있다. 이로써 ‘權’의 의미가 ‘秤錘’(저울추)임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權力’(권력)의 의미로 전이되었다.

‘藍’자를 살펴보면, 甲骨文과 金文에는 보이지 않지만, 《說文解字》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藍，染青草也。從艸，監聲。”(藍은 파란색으로 물을 들일 때 쓰는 풀이다. 艸가 形符이고 監이 聲符이다)에서 ‘藍’¹⁵⁾의 의미가 ‘염료로 사용되는 풀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색깔 의미는 후에 전이되어 생긴 것이다.

‘曲’은 《說文解字》에 “曲，象器曲受物之形。”(曲은 네모진 그릇에 물건이 담겨진 모습을 본뜬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曲’의 원래 의미가 ‘彎曲的器皿’(굽은 모양의 그릇)임을 알 수 있다. 현재의 ‘曲的形狀或作量詞’(굽은 모양 또는 量詞로 사용) 의미는 낱말 의미가 전이되어 생긴 것으로 보인다.

14) ‘斧’와 ‘斤’은 갑골문에 이미 사용되었고, 본래 의미도 ‘도끼’의 의미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先秦 문헌에 이르게 되면 사용이 달라지는데, 《詩經》에 8번 사용된 ‘斧’의 의미는 모두 ‘도끼’라는 뜻이다. 그러나 《戰國策》에 9번 사용된 ‘斤’의 의미는 ‘도끼’라는 뜻을 잃고 도량형의 단위인 ‘한 근’의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이후 ‘斤’은 量詞로만 사용되고 있다.

15) 古代 중국어에서 ‘藍’은 색깔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藍色을 가리킬 때는 ‘靑’자를 사용하였고, 짙은 藍色은 ‘蒼’으로 표현하였으며, 옅은 藍色을 의미할 때에는 ‘碧’자를 썼다.

이상의 유형들은 모두 특정한 사물의 의미를 가리키는 A사물 의미에서 다른 사물을 지칭하는 B사물 의미로 낱말 의미의 전이가 생긴 예이다.

6. 나가기

한 낱말의 쓰임, 의미, 용법 등은 왜 時空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것일까?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한 궁극증을 약간이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였다.

李宗江(1999)은 常用詞 演變의 요인을 설명하면서, 낱말이 변화하는 과정과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낱말의 연변이 생기는 것은 우선 語音이 변화하기 때문이고, 낱말 의미가 演變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대별로 중국어 語法의 변화, 語境의 영향 등도 낱말의 변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語彙 체계의 변화, 외국어 낱말의 유입도 낱말의 演變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낱말의 演變이 일어날 것이다. 각 요인의 연구 영역을 살펴보면, 아마도 語音의 변화는 音韻學 분야에서, 語法과 語境의 변화는 語法學 영역에서 설명될 수 있을 텐데, 이 글은 다른 영역은 제외하고 온전히 어휘학적 관점, 즉 낱말 의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낱말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특히 낱말 의미의 演變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낱말 의미 항목에 대해 전면적인 분석을 하였다. 낱말 의미 항목의 증가와 낱말 의미 항목의 축소 또는 탈락에 대한 논의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낱말 의미 항목이 증가하게 되면 낱말의 의미도 확대되게 마련이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이 글은 의미 항목의 탈락이 낱말 의미 축소를 가져오는 것 이외에 의미 항목의 탈락이 오히려 낱말 의미 항목의 확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강조하여 분석하였다.

날말 의미 항목의 연변 유형을 정리 할 때도, 지금까지의 연구는 의미 항목의 증가, 의미 항목의 감소만을 언급하였다. 葛本儀(2003)의 연구에도 의미 항목의 전이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글은 날말 의미 항목의 연변 유형에 의미 항목의 전이를 포함시켜서 서술하였고, 날말 의미의 전이 유형을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 參考文獻 >

- 葛本儀(2003), 《漢語詞彙學》, 山東大學出版社.
- 郭伏良·白雲霜(2011), <詞義構成視角下的當代漢語詞義演變類型研究>, 《蘇州教育學院學報》第3期.
- 馬啓俊(2012), <源自莊子的成語詞義演變例析>, 《阜陽師範學院學報》第1期.
- 閔載泓(2008), <중국어 날말의 의미 변화 연구>, 《中國文化研究》제13輯.
- 朴金鳳(2008), <論詞彙語義的變化與發展>, 《安徽工業大學學報》第3期.
- 符淮青(1996), 《漢語詞彙學史》, 安徽教育出版社.
- 蘇健·王谷全(2012), <從原型理論看詞義的演變>, 《廣角鏡》第2期.
- 宋建軍(2003), <詞義演變的方式初探>, 《語文學刊》第3期.
- 宋宜(2004), <詞義演變二次分類分法的理論思考>, 《西南民族大學學報》第6期.
- 王剛雲(2012), <詞義的演變>, 《語文學刊》第1期.
- 王艷敏(2012), <從爾雅看古今詞義演變>, 《遼寧教育行政學院學報》第2期.
- 劉桂芳·吳義江(2008), <詞義演變及其系統性新探>, 《白城師範學院學報》第4期.
- 劉道鋒(2009), <飲食類動詞“嘗”的詞義演變及其動因>, 《湖南人文科技學院學報》第5期.
- 李丹(2006), <詞義演變探微>, 《陝西理工學院學報》第2期.
- 李炳官(1999), 《常用2000漢字形音義源流字典》, 美術文化院.
- 李衛清(2007), <多義詞詞義的演變及動態建構>, 《常州工學院學報》第3期.
- 李宗江(1999), 《漢語常用詞演變研究》, 漢語大詞典出版社.
- 張紹全(2010), <詞義演變的動因與認知機制>, 《外語學刊》第1期.
- 陳瑜·趙華俊(2008), <詞義擴展的隱喻和轉喻認知機制探微>, 《沈陽大學學報》第2期.
- 夏繼先(2003), <詞義演變探析>, 《濮陽教育學院學報》第4期.

許慎 撰(1993), 《說文解字》, 黃山書社.

黃樹先(2011), <詞義發展論說>, 《漢語學報》 第3期.

<中文提要>

語言發展是漸變的, 詞義的發展演變亦如此。對詞義演變的探討要從共時和歷時的角度出發, 因為縱觀古今詞義的演變不難發見, 詞義演變不僅僅是擴大縮小和轉移那樣簡單。本文全面分析詞義演變, 詞義演變是指詞義的變化, 也就是說詞的義項發生了變化。注重研究詞的義項, 將詞的義項分為詞的義項增加, 詞的義項減少, 詞的義項轉移。通過義項變化的研究, 得出了如下結論。詞義擴大主要是限制性義項脫落的結果, 詞義縮小則主要是並列性義項脫落的結果, 詞義轉移主要是義項轉移的結果。詞義轉移變化有幾種情況, 一是從指人轉向指物, 二是從指物轉向指人, 三是從指人甲轉向指人乙, 四是從指物甲轉向指物乙。這種現象體現出漢語詞義演變的多樣性和複雜性。

關鍵詞: 詞義演變、詞的義項、詞義擴大、詞義縮小、詞義轉移、義項脫落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12. 31.	2013. 2. 12.	2013. 2. 16.	2013. 2. 21.	2013. 2. 28.